

살라만드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감동하지 않고 명상에 잠길 수 있는 회의론자들, 17세기 영국의 학자 영(Yonug)박사는 불 속에서 타지않는 「살라만드라」에 비유하였다.

살라만드라(Salamander)는 실존하는 동물로서 화사(火蛇)라고도 하고 불도마뱀이라고도 부른다. 또, 불을먹는요술사(Fire-eater)라는 별명도 있다. 우선 우리의 친구 살라만드라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를 보자.

<표> 방화의 상징 살라만드라

구 분	상징적 의미	사실적 의미
존 재	○불도마뱀	○한국·일본 등지에서 발견되는 도롱뇽(山椒魚)
생 태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들은 살라만드라가 불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을 끌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불꽃을 보면 마치 정복할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꽃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함.	○속이 빈 통나무 등에서 동면하다가 장작과 더불어 불속에 들어가면 신체의 기공(氣孔)으로부터 우유와 같은 액을 다량 분비하여, 잠이깨어 탈출할 때까지 자기의 몸을 불로부터 방어.
용 도	○살라만드라의 가죽을 방화용작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며, 석면직물의 기원으로 풀이함.	○전설의 불도마뱀과 이름이 같은 도롱뇽의 껍질을 방화용 직물로 사용.
어 원	○Salamander ①한국, 일본 특산의 도롱뇽 ②불속에서 산다는 전설상의 동물(불도마뱀) ※Salamander를 어원으로 하는 Salamandrine은 “耐火”이 뜻이 있음.	

살라만드라는 전설상의 불사조(不死鳥) 등과는 달리 지구상에 살아있으면서도 불과 더불어 전설같은 이야기가 얽힌 흥미있는 동물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조각가 첼리니 경이 다섯살 무렵의 일이었다. 벽난로에서 참나무 장작불이 기분 좋게 타고 있을 때 그의 부친은 불속에 있는 동물을 보게한 후 갑자기 아들의 따귀를 때렸다. 울기 시작한 그를 달래며 부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너를 때린 것은 잘못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불 속의 조그만 동물이 살라만드라 라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시키기 위해서다. 이 동물은 내가 아는 한 이제까지 사람의 눈에 띈 일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유럽 최초의 자서전이라는 「벤베누토 첼리니의 생애」에 기록되어 있다.

林語堂은 蘇東坡의 사상을 불(火)로 상징하여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 소동파의 성품이나 생애 그 자체가 마치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가는 곳 마다 용기와 생명력을 넣어 주었고, 동시에 어떤 것 들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징 되던 東坡가 노년에 귀양지인 담주(擔州)에서 동생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보자.

“이곳의 기후는 습기차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쯤에는 모든 물건 들이 다 썩어버린다. 사람이 돌이나 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이런 날씨를 어떻게 오래도록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나는 이곳에서 80, 90세 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100세가 넘는 노인들도 많은 것을 보았다. 이를 보니 장수의 비결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불도마뱀은 불 속에서도 살 수 있고, 누에의 알들은 얼음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처럼...”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자 풍수도참설을 빌어 이를 무마하려고 동원한 동물이 「해태」였고, 미국방화협회(NFPA)가 1951년 소방의 심볼로 지정한 것이 「스파크견(spark犬)」이다.

우리나라 원산의 살라만드라(불도마뱀)를 火災豫防의 상징으로 정하면 어떨까.

<위험관리부> 金 東 一